

## 제목 :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회> 발표 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후원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회」를 1월 31일 9시 30분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 발표 논문

발 제1: 「생애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2: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과 연금휴대성」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

발 제3: 「중고령자의 행복경제학: 이전소득과 자녀의 왕래 빈도가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재호(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발 제4: 「家計資産 分布와 不平等度の 要因別 分解: 勞動패널 資料를 中心으로」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생애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담 당 자	김기현 연구위원
소 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 화	02-2188-8880(018-313-3371)
매 수	7 매

-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애 초기 유아교육이나 보육, 사교육 경험 여부가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OECD(2006)에 따르면, 만 5세아 유치원 취원율은 영국 100%, 프랑스 99%, 독일 90%, 미국 90%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그것은 45%에 그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2006년 현재 82.1%(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낮은 유아교육 취원율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의 9차년도(2006년) 청년용 부가조사(Youth Module) 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KYPS: Korea Youth Panel Survey)의 3차년도(2006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음. KLIPS의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는 조사 당시(2006년)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KLIPS는 가족 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 기회의 격차와 추이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으며 KYPS는 생애 초기 유아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4학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음.

## I. 가족배정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 기회의 격차(KLIPS)

- 먼저 노동패널 청년부가조사 자료(만 15세 ~ 만 35세 패널응답자 4,389명)를 이용하여 살펴본 유치원 취원비율은 최근 연령 코호트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974년 이전의 연령코호트의 취원비율은 23.8%에 불과했으나 1990년 이후 연령코호트의 그것은 88.9%로 증가하였음.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졸, 대졸로 구분해 볼 때 부의 교육이 대졸인 경우 취원비율은 69.4%에서 96.8%로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졸인 경우에도 12.5%에서 73.7%로 크게 증가하였음. 다만, 상위 교육수준을 능가하는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표 1〉 연령코호트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교육 경험 비율

(단위: %)

	유치원					어린이집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초졸_부의 교육	12.5	36.2	59.0	78.7	73.7	1.0	1.8	5.9	2.0	15.8
중졸_부의 교육	19.6	49.0	74.8	79.4	82.4	2.0	3.6	6.9	3.9	14.7
고졸_부의 교육	28.9	59.2	83.6	89.2	89.9	1.6	5.3	8.1	9.7	13.1
대졸_부의 교육	69.4	89.9	93.0	96.8	96.8	1.2	4.7	5.2	5.8	19.0
전체	23.8	54.7	78.6	87.3	88.9	1.5	3.8	7.4	7.1	13.3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9차년도 부가조사

-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1990년대 들어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985-89년 코호트에서 7.1%에 머물던 어린이집 경험 비율은 1990년대 들어 13.3%로 5.2%p나 상승하였음.
-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의 교육계층에 따른 취원비율이 유치원과는 판이하다는 점임. 곧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린이집 경험비율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음. 1980-84년 연령코호트의 경우 부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인 경우가 5.9%로 대졸인 경우(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가 1975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연령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1990년 이

후 연령코호트의 경우에서 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 19.0%의 경험비율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등에 지원을 통해 입소가 유치원보다는 용이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목적을 해결하는 탁아기능이 강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동시에 3세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상위계층의 가족은 자녀를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표 2〉 연령코호트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  
(단위: %)

	초등 전 사교육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초졸_부의 교육	4.4	13.8	16.0	16.3	26.3
중졸_부의 교육	7.9	15.0	25.0	32.3	29.4
고졸_부의 교육	17.6	26.8	28.9	38.7	36.7
대졸_부의 교육	34.1	34.1	40.5	51.0	61.9
전체	11.8	20.7	27.9	38.2	41.5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9차년도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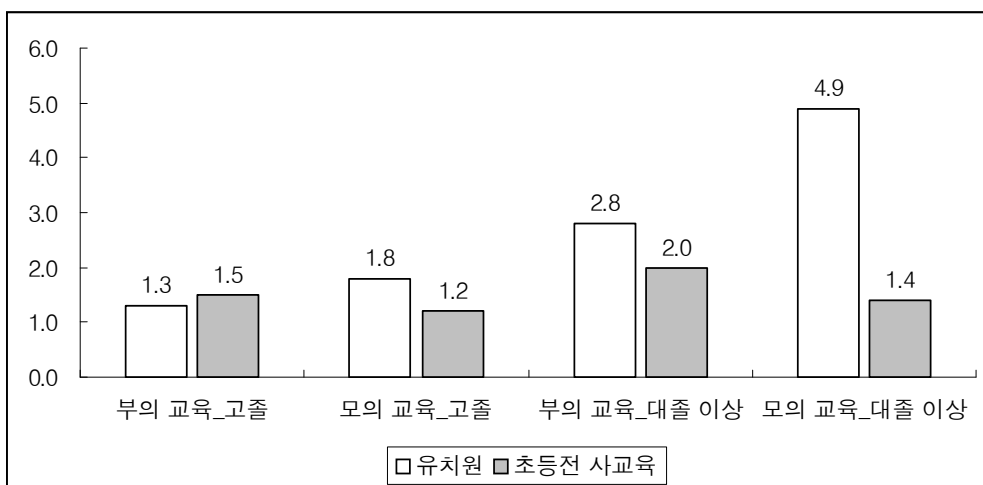
- <표 2>는 연령코호트별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 역시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1974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11.8%만이 사교육을 경험하였으나 1990년 이후 코호트의 그것은 61.9%에 이르고 있음.
-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부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경험 비율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교육계층에 따른 격차는 유치원의 그것보다 매우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부의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26.3%)과 비교해서 대졸인 경우(61.9%) 2배 이상 높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다음으로 유아 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치원 취원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유아교육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음.
- 사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유치원의 경우와 대동소이한데 다만, 어머니가 3세 때 미취업인 경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음.
-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코호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 부모의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전문대 포함)졸 이상의 범주형 변수로 투입해 확률비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음. 곧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서 유치원에 취원할 가능성은 1.3배,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은 1.5배 높아지며 대졸 이상의 경우 각각 2.8배, 2.0배 높아지게 됨.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유치원 취원 가능성은 더욱 뚜렷해지는데 고졸일 때 1.8배에서 대졸일 때 무려 4.9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중졸 이하의 부모 교육수준 대비 유치원 및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의 확률비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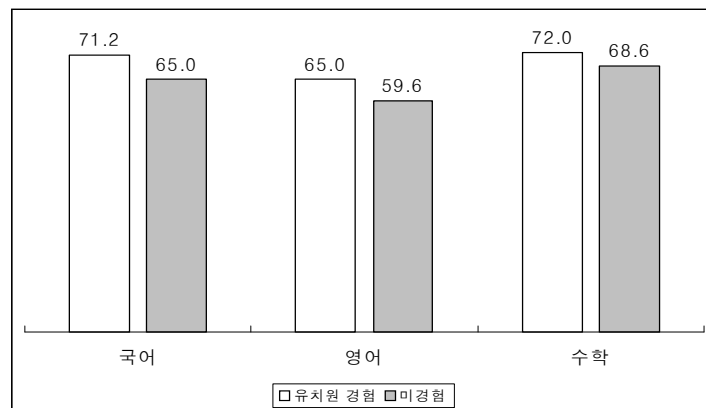


- 그렇다면, 가족배경의 영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가 혹은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가족배경과 연령코호트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 모형에 투입하여 확인하였음. 분석모형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가족배경의 영향은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임.

## II. 생애초기 유아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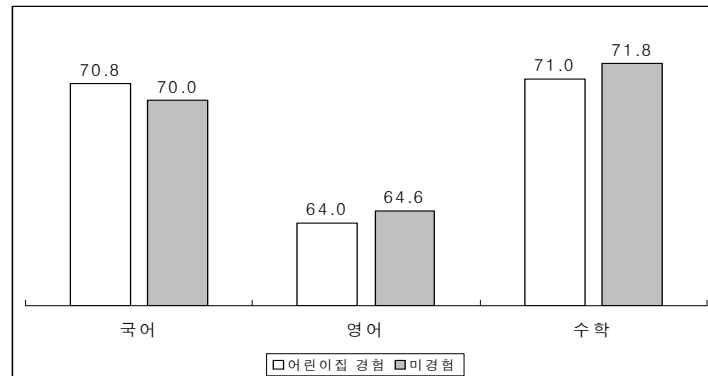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2,844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과목별로 최저 점수 1점에서 최고 점수 5점까지 학업성적을 답변토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 경험 여부에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국·영·수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유치원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국어성적 점수가 71.2점으로 미경험 학생(65.0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어 및 수학 점수에 있어서도 유치원을 경험한 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유치원 경험 여부에 따른 초4 국·영·수 학업성적  
(단위: 점)



주: 최대값(5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값

[그림 3]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따른 초4 국·영·수 학업성적  
(단위: 점)



주: 최대값(5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값

-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 국어성적이 70.8점이고 미경험 학생의 그것이 70.0점으로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회귀분석을 통해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 성취도(전체 과목별 점수 합산한 값)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과 사교육 경험의 경우 개인 특성과 가족배경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음.

〈표 3〉 유아교육 경험이 초 4 때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유치원 경험(vs. 미경험)	1.703(.297) <sup>***</sup>	1.194(.268) <sup>***</sup>	.839(.256) <sup>**</sup>
어린이집 경험(vs. 미경험)	.166(.242)	.124(.218)	.098(.206)
초등전 사교육 경험(vs. 미경험)	1.085(.235) <sup>***</sup>	.827(.213) <sup>***</sup>	.663(.202) <sup>**</sup>
여성(vs. 남성)		.875(.190) <sup>***</sup>	.645(.182) <sup>***</sup>
서울지역(vs. 농촌지역)		.868(.397) <sup>*</sup>	.341(.381)
도시지역(서울제외)(vs. 농촌지역)		1.028(.346) <sup>**</sup>	.667(.330) <sup>*</sup>
자아존중감		.500(.023) <sup>***</sup>	.366(.024) <sup>***</sup>
초4 때 사교육 경험(vs. 미경험)		2.948(.416) <sup>***</sup>	1.962(.401) <sup>***</sup>
부의 교육			.163(.050) <sup>**</sup>
모의 교육			.112(.058) <sup>†</sup>
가구소득(자연대수)			.904(.203) <sup>***</sup>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008(.284)
형제자매수			-.010(.162)
부모애착도			.272(.023) <sup>***</sup>
상수항	28.803(.294) <sup>***</sup>	14.729(.717) <sup>***</sup>	4.441(1.172) <sup>***</sup>
N(사례수)	2,325	2,325	2,325
R <sup>2</sup>	.023	.213	.298
Ad. R <sup>2</sup>	.021	.211	.29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 E.)임. <sup>†</sup>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과 연금휴대성

담 당 자	김용하
소 속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전 화	011-9042-9117
매 수	1 매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퇴직금의 유형과 관련하여 DC형과 DB형 간에 있어서 노사간의 이해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됨. DC형과 DB형의 선택은 리스크의 책임주체 문제와 임금체계와 관련한 유불리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지만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연금유형의 선택이 미치는 연금휴대성 문제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연금휴대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퇴직연금의 선택 유형으로서 DB형과 DC형을 간략하게 비교한 다음, 근속기간 분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의 수급 가능확률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적용확대되고 대상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25% 내외가 퇴직연금을 수급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이 미미할 경우,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제한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휴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중고령자의 행복경제학:

이전소득과 자녀의 왕래 빈도가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담 당 자	김재호
소 속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전 화	017-397-5884
매 수	5 매

### I. 서론

- 모든 사람들이 행복(Happiness)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의 연구들은 소득 말고도 인간의 행복, 즉 주관적 만족(Subjective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가령, 종교의 유무, 정치적 상황, 승진과 사회적 성취도, 물가와 실업 등이 그러함.
-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행복은 측정불가능 하며 비과학적이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최근의 연구들은 행복을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제시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연구하고 있음(Frey and Stutzer, 2002).
-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왕래빈도는 고령자의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녀들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용돈)과 국가로부터의 공적이전은 경제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본고에서는 「KLIPS 9차」를 이용하여 50세이상 고령자의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살펴봄. 특히 이전소득을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함께 소득, 자산, 주택 등의 경제적요인과 함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등의 사회적 요인, 자녀의 왕래빈도, 함께 사는 가족의 수라는 가족적 요인 그리고 건

강상태를 을 포함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

- 가족의 소득, 가족관계 그리고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차례로 조사했음.
  - 첫 번째로 가구주는 다른 비가구주와 달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의무감으로 가족의 수입과 관련한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로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사적이전과 왕래는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중요변수로 예상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산, 주택소유,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봄. 이밖에도 공적소득, 성별, 학력, 거주지 등의 변수들도 결정요인으로 연구의 대상이 됨.

## II. 자료 및 기술통계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9차자료중 50세이상의 중고령자 자료를 이용함.
  - 생활만족도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있음.
- 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
  - 가족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3.43으로 다소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표준편차도 0.77로 가장 커서 다른 만족도에 비해 만족도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47로 대략 다소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2.82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중고령자들은 생활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가족관계 등으로 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설명변수의 빈도 및 비율
  - 50세이상 중고령자중에 가구주는 60.2%로 비가구주에 비해 많았음.
  -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음.
  -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2.88%로 60대가 38.18%로 70대가 22.05%로 80대가 6.12% 그리고 90대이상이 0.77%에 해당했음.

- 학력은 중졸 미만이 49.6%, 중졸 또는 고졸이 41.6%, 전문대졸이상인 8.8%로 나타났다.
- 거주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도시로 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이북, 외국을 비도시로 구분했음. 이중 이북과 외국은 응답자가 없었고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51.03%, 비도시 거주자는 48.9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 자녀의 월 왕래횟수는 월 1회가 34.23%, 월 4회가 19.75%, 월 2회가 18.43% 그리고 3회는 5.71%로 응답했고 나머지는 5%이하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음.
- 주택소유자는 23.16%, 비소유자는 76.84%로 응답했음.
- 가구원수는 2명이 40.17%, 3명이 25.77%, 4명이 13.55% 그리고 1명이 13.44%로 응답했고 나머지는 5%이하의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음.
-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34.4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31.89%로 응답했음.

### III. 추정결과

#### ○ 첫째로, 경제적 만족도의 ordered probit모형의 결과 살펴봄

- 가구주와 성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가구주와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이는 남성 가구주가 전통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의 제곱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지만 유의하지 않았음.
- 학력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보다 중졸 또는 고졸자가 만족도가 높고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중졸 또는 고졸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도시 거주보다 비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산이 높을수록 역시 만족도가 높았음.
- 자녀의 월 왕래횟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냈지만 유의하지 않았음.
- 주택을 소유할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음.
- 가구원수가 많은 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떨어졌음.
-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떨어졌음. 이는 사적이전이나 공적이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적이전이나 공적이전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일 것임. 김희삼(2007)에 따르면 사적

이전액은 부모의 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함.

- 총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높게 나왔음.
- 이상의 결과는 ordered logit모형과 큰 차이가 없음.

○ 둘째로,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봄. 역시 ordered probit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가구주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가구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하지만 경제적 만족도에 비해 가족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음. 이는 전통적 여성중심의 가정문화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연령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연령의 제곱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며 역시 유의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비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학력은 경제적 만족도와 같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음.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보다 중졸 또는 고졸자가 만족도가 높고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중졸 또는 고졸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도시 거주자 보다 비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자산이 높을수록 역시 만족도가 높았음.
- 자녀의 월 왕래횟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을 소유할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음.
-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은 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떨어졌음.
- 사적이전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 사적이전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음.
- 반면 여전히 공적이전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떨어졌음.
- 총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높게 나왔음.
- 이상의 ordered probit모형결과와 차이가 나는 ordered logit모형의 결과는 자산과 자녀의 월 왕래횟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임.

○ 셋째로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절충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적 만족도와 같이 가구주와 성별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가구주와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연령은 가족관계 만족도와 같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연령의 제곱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며 역시 유의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비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학력과 거주지 그리고 자산은 공통된 생활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자녀의 월 왕래횟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면서 경제적 만족도와 같이 왕래횟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음.
- 주택을 소유할수록 그리고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수는 동일하게 부호를 유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건강할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가구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음.
- 사적이전에 있어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공적이전은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끝으로 총소득이 높을수록 역시 공통되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는 ordered logit모형과 큰 차이가 없음.

# 家計資産 分布와 不平等度の 要因別 分解: 労働패널 資料를 中心으로

담 당 자	남상호
소 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 화	02-380-8109
매 수	4 매

## I. 研究 概要

- 본 연구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고, 자산 항목별 및 가구주 특성별로 불평등도의 요인 분해를 수행하였음
  - 총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것이며,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함

## II. 主要 結果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의 지니지수는 0.731,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438로 나타나 총소득보다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았음
  - 총소득과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0.313으로 나타나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 1999~2006년 기간 중 순자산 집중도는 꾸준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산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는 상위 1% 계층이 순자산의 9.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0.9%, 그리고 상위 10%는 46.2%를 가지고 있었음
- 총소득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 5%, 10%계층이 각각 9.0%, 21.4%, 3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의 경우 상위층 1%, 5%, 10%의 소득점유율이 각각 7.8%, 19.9%, 28.3%이었음
-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음
  - 자산 상위계층의 경우 부채와 순자산이 같이 증가하였으며, 자산 하위 계층의 상대 소득점유율 하락은 자산축적 여력이 과거에 비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
- 가구 순자산의 Lorenz 곡선을 살펴보면 자산 하위계층에서는 불평등이 축소되었으나 자산 상위계층에서의 불평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참조)
-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부동산이 약 93%, 금융자산이 약 12% 불평등도를 높인 반면, 총부채는 5% 정도 불평등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가구순자산의 불평등도를 가구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산업별 및 직업별로 분해한 결과, 그룹내 불평등기여도가 그룹간 불평등기여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분해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불평등도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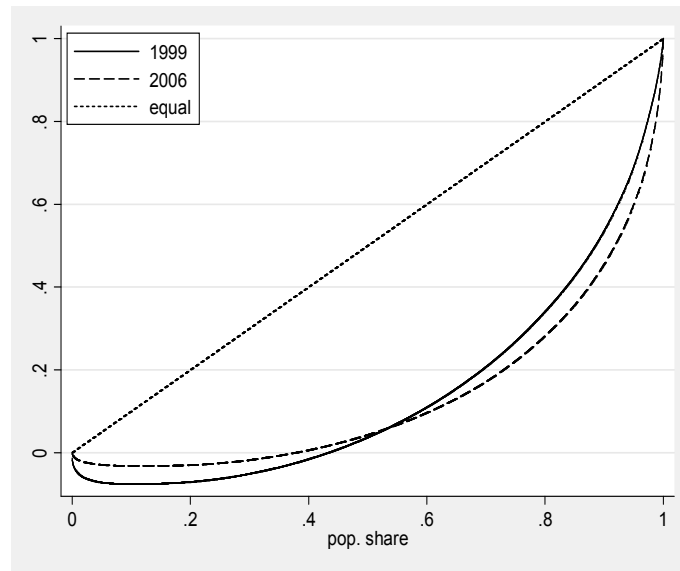
- 상대 기여도를 살펴보면 60대 가구주 그룹에서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고(28.5%), 그 다음으로 40대 그룹(26.6%), 50대 그룹(26.1%)의 순서로 나타남
  - 또 최근 들어 70대 이상 그룹에서의 자산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학력별로 순자산 불평등도를 분해한 결과, 거의 모든 학력 그룹에서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학력계층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음
- 상대 기여도를 살펴보면 대학교(4년제) 졸업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49.2%),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그룹(21.9%), 중졸(9%)의 순서임
- 가구주 종사산업별로 불평등도를 분해해 보면 서비스업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고(약 50%), 서비스 산업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음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은 1999년과 비교할 때 상대기여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의 경우 불평등지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직업별로 불평등도를 분해해 보면 2006년의 경우 전문직의 상대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36.9%), 전문직 내의 불평등지수도 높아지고 있었음
- 1999~2006년 중 전문직에서 불평등지수 뿐만 아니라 상대 기여도 또한 급속하게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문직 종사자간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III. 示唆點

- 외국의 경우 소득지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소득지지정책보다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음

- 하위 자산계층에서 아동개발계좌를 통한 교육 지원이나 개인개발계좌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실효를 거둘 때 비로소 분배불평등이나 사회 양극화가 문제가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할 것임

〈그림 1〉 가구 순자산의 로렌츠 곡선 (1999, 2006)



주: 세로축은 순자산의 누적점유율임.